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 PART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학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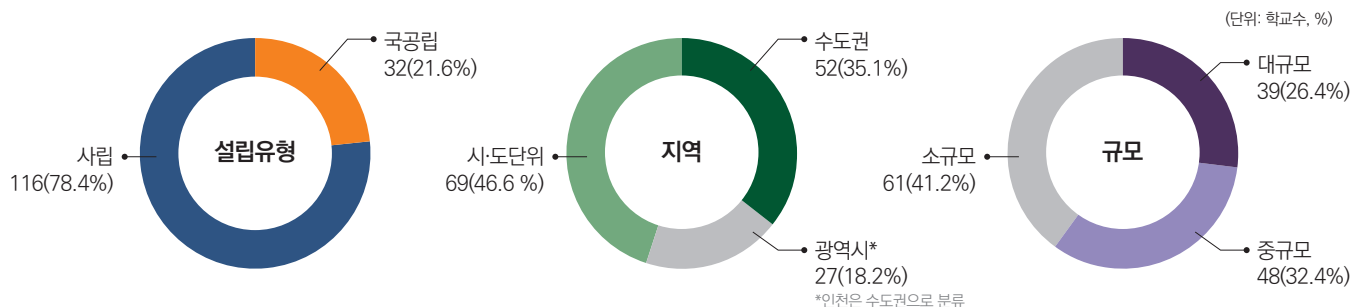
2025 KCUE Survey of University Presidents(Ⅱ)

: PART 1. University Innovation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I. 조사개요

- **조사목적**: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교육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하고 정책 건의 등에 활용
- **조사기간**: 2025년 4월 29일(화) ~ 5월 27일(화)
- **조사방법**: 전자공문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율**: 회원대학 중 192개교* → 148개교 응답(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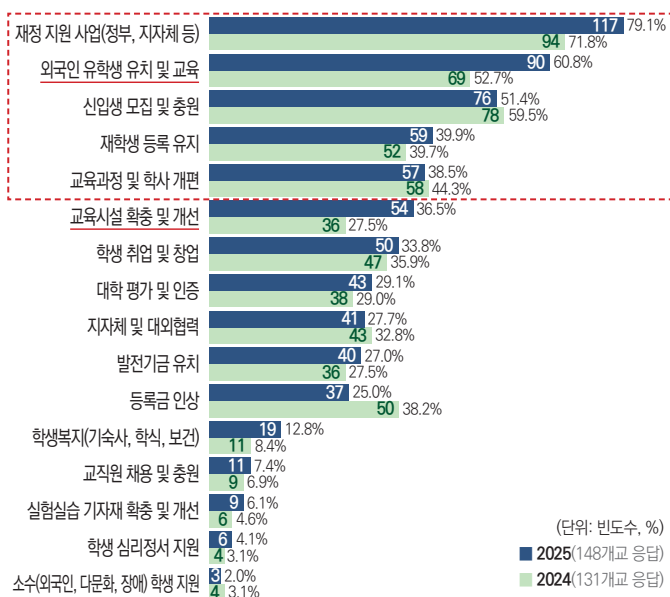
* 문항특성상 특별대 5교 제외(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그림 1] 응답대학 특성

II.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 비교

- (전체)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9.1%(117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60.8%(90개교), '신입생 모집 및 충원' 51.4%(76개교), '재학생 등록 유지' 39.9%(59개교),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38.5%(57개교) 순으로 나타남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 사업'은 1위로 변동 없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은 2위(8.1%p ↑)로 진입하여 2023년 설문조사 이후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 및 충원'보다 높게 나타남
-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36.5%, 54개교)은 전년대비 9.0%p로 대폭 상승하여 6위로 올라옴



[그림 2]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2024년(Ⅱ) 대비)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관심 영역은,
 -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시도단위, 중·소규모에서 2순위로 나타남.
 - 국공립 대학은 전체적인 순위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학생 취업 및 창업'이 2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 4위,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5위로 나타남
 -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은 수도권, 광역시, 대규모 대학에서, '발전기금 유치'는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서 5순위 안으로 나타남

<표 1>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 순위(설립유형·지역·규모 상위 5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	1	1	1	1	1	1	1	1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2	4	2	2	2	3	2	3	3
신입생 모집 및 충원	3	5	3		3	2		2	2
재학생 등록 유지	4		4		4	4		4	4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5	2	5	5		5		5	5
학생 취업 및 창업		2					3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3	5		4		
발전기금 유치				4			5		
등록금 인상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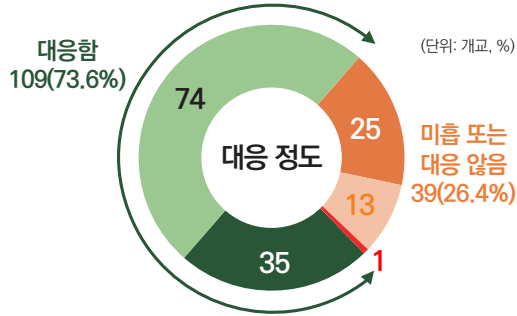
III. 대학의 디지털 대전환 관련

※ 본 설문에서는 “대학에서의 디지털 대전환”을 아래와 같이 정의함

: 디지털 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여 학생 선발, 교수·학습 방식, 교육과정(교육 콘텐츠), 대학 운영 및 정책, 평가 등 전 영역을 혁신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을 의미함

○ 대학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 정도는,

- 대응하고 있는 대학이 73%(109개교/적절한 대응 35개교, 일부 대응 74개교)로 나타나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을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 일부 대응하고 있다. ■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
■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 ■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대학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 정도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대응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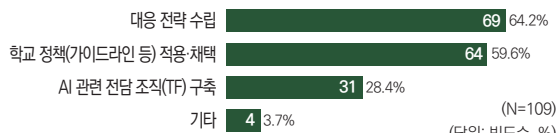
- 국공립 대학은 81.3%(32개교 중 26개교)로 사립대학은 71.6%(116개교 중 83개교)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대규모 대학이 94.9%(39개교 중 37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은 시도단위 대학이 63.8%(69개교 중 44개교), 규모는 소규모 대학이 57.4%(61개교 중 35개교)로 대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대학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 정도(설립유형·지역·규모) (단위: 개교, %)

구분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응답교	148	32	116	52	27	69	39	48	61
대응함	109(73.6)	26(81.3)	83(71.6)	42(80.8)	23(85.2)	44(63.8)	37(94.9)	37(77.1)	35(57.4)
미흡 또는 대응 없음	39(26.4)	6(18.7)	33(28.4)	10(19.2)	4(14.8)	25(36.2)	2(5.1)	11(22.9)	26(42.6)

○ 대학 차원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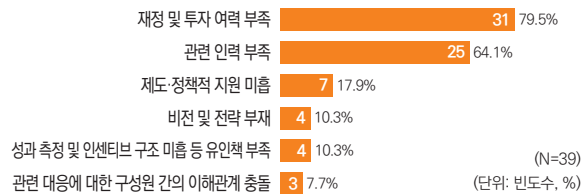
-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109개교 중 ‘대응 전략 수립’ (69개교, 64.2%)이 1위로 나타남
- 대응전략 수립, 학교정책 적용·채택, AI 관련 전담조직 구축 모두를 선택한 대학은 13개교로 나타남



[그림 4]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의 대응(중복선택)

○ 디지털 대전환 대응이 미흡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 ‘대응 미흡 또는 대응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39개교 중 ‘재정 및 투자 여력 부족’ (31개교, 79.5%)이 1위, ‘관련 인력 부족’이 2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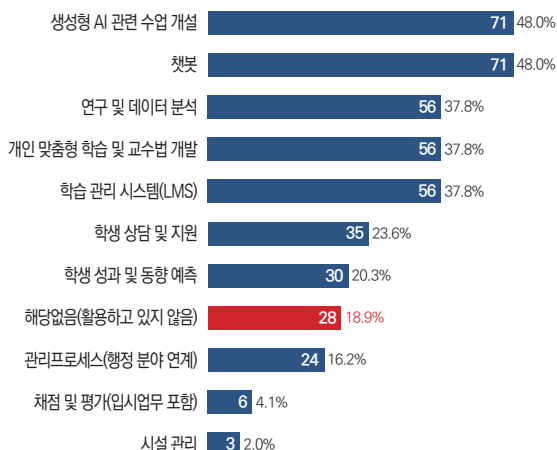


[그림 5] 디지털 대전환 대응이 미흡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중복선택)

○ AI(생성형 AI 포함) 활용 현황은, ‘생성형 AI 관련 수업 개설’과 ‘챗봇’이 1위(71개교, 48.0%)로 나타남

- 이어 3위는 ‘연구 및 데이터 분석’, ‘개인 맞춤형 학습 및 교수법 개발’, ‘학습 관리 시스템’이 각각 37.8%(56개교)로 나타남

(단위: 개교, %)



[그림 6] 대학에서의 AI 활용 현황(모두 선택)

○ 대학의 지역, 규모에 따른 AI 활용 현황은,

- 소규모 대학은 ‘챗봇’과 함께 ‘개인 맞춤형 학습 및 교수법 개발’이 1위로 나타남
- 수도권 대학은 ‘학습 관리 시스템’과 ‘생성형 AI 관련 수업 개설’이 2024년 4위에서 각각 2위, 3위로 상승함
- 전년과 대비하여, 2025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AI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3〉 2024년(II) 대비 지역 및 규모에 따른 대학에서의 AI 활용 현황(상위3개)

구분	전체	지역			규모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생성형 AI 관련 수업 개설	1 (1)	3 (4)	1 (1)	1 (1)	2 (1)	1 (1)	
챗봇	1 (2)	1 (1)	2 (2)	2 (2)	1 (2)	2 (3)	1 (1)
연구 및 데이터 분석	3 (3)		3 (2)		3 (3)	3 (2)	
개인 맞춤형 학습 및 교수법 개발	3 (4)		3 (3)	3 (5)			1 (2)
학습 관리 시스템(LMS)	3 (5)	2 (4)					3 (1)

* 2024년도 순위: 주황색 괄호

-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9개 항목 중 우선순위에 따라 1~3순위로 선택하여 가중치 반영합계*로 분석한 결과,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이 1순위로 나타남
- 이어 '학생 맞춤형 학습 모듈(시스템) 구축' 2순위, 'AI 활용 등을 위한 교수 학습법 개발' 3순위로 나타남

〈표 4〉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한 중요 우선순위 분야(우선순위 3순위)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그래프)	가중치 반영합계	우선순위별 응답 대학 수			
			총 응답대학수	1순위	2순위	3순위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	251	251	107	59	26	22
학생 맞춤형 학습 모듈(시스템) 구축	132	132	64	21	26	17
AI 활용 등을 위한 교수 학습법 개발	127	127	70	13	31	26
우수 교직원 채용	102	102	38	30	4	4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	87	87	47	8	24	15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기반 교육 강화	72	72	43	8	13	22
대학 행정·경영의 디지털화	67	67	44	5	13	26
교육 데이터 기반의 평가와 피드백	47	47	30	3	11	16

*주: 본 자료에서 누적가중치는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의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한 값을 의미함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 국공립 대학은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이 2순위,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기반 교육 강화'가 3순위로 나타남
- 시도단위 대학은 'AI 활용 등을 위한 교수 학습법 개발'이 2순위로 나타남
- '우수 교직원 채용'은 광역시와 시도단위 대학에서 3순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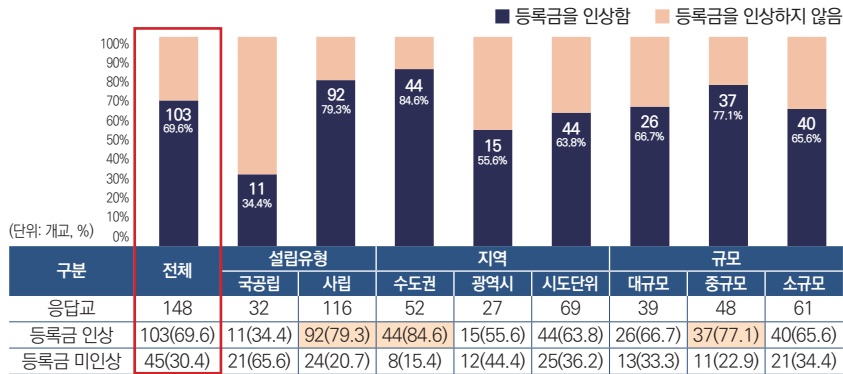
〈표 5〉 디지털 대전환 대비 중요 우선순위(설립유형·지역)

구분	전체	설립유형		지역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	1	1	1	1	1	1
학생 맞춤형 학습 모듈(시스템) 구축	2		2	2	2	
AI 활용 등을 위한 교수 학습법 개발	3		3			2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		2		3	3	
우수 교직원 채용					3	3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 기반 교육 강화		3				

...

IV. 등록금 인상 대학의 학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 또는 계획한 분야

- 2025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48개 응답 대학 중 103개교(69.6%)로 나타남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2025년도 등록금 인상 대학은, 사립대학(79.3%, 116개교 중 92개교), 수도권 대학(84.6%, 52개교 중 44개교), 중규모 대학(77.1%, 48개교 중 37개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7〉 2025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설립유형·지역·규모)

- 2025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103개교)에서 학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 또는 집행을 계획한 분야는 10개 항목 중 우선순위에 따라 1~3순위로 선택하여 가중치 반영합계*로 분석한 결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지원(신설 또는 리모델링)'이 1순위로 나타남
- 이어 '첨단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2순위, '노후 시설 보수'가 3순위로, 1~3순위 모두 학생의 학습·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등록금 인상 대학의 학생을 위한 투자 분야(우선순위 3순위)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그래프)	가중치 반영합계	우선순위별 응답 대학 수			
			총 응답대학수	1순위	2순위	3순위
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지원(신설 또는 리모델링)	145	145	73	24	24	25
첨단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127	127	56	24	23	9
노후 시설 보수	81	81	41	13	14	14
우수 교직원 채용 및 총원	77	77	35	17	8	10
교내 장학금 확대 지원	77	77	35	17	8	10
다양한 커리큘럼(비교과 포함) 및 활동 지원	46	46	24	5	12	7
글로벌 경험 지원 확대	28	28	17	1	9	7
취·창업 지원(컨설팅, 코칭, 현장 연계, 멘토링, 자격증 지원 등)	21	21	17	1	2	14
심리정서 지원 확대(교내 및 교외 상담 지원 등)	10	10	6	1	2	3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보건실·체력단련실 활성화, 바우처 등)	4	4	3		1	2

*주: 본 자료에서 누적가중치는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의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한 값을 의미함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서는 ‘첨단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1순위로 나타남

〈표 7〉 등록금 인상 대학의 학생을 위한 우선적 집행 분야 순위(설립유형·지역·규모)

구분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지원	1	1	1	2	1	1	1	1	1
첨단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2	3	2	1	2	2	1	2	2
노후 시설 보수	3		3	3					3
우수 교직원 채용 및 충원							3		
교내 장학금 확대 지원					3			3	
다양한 커리큘럼(비교과 포함) 및 활동 지원		1		2					

- ‘다양한 커리큘럼(비교과 포함) 및 활동 지원’은 국공립 대학에서 1순위, 광역시 대학에서 2순위로 나타남
- ‘교내 장학금 확대 지원’은 시도단위 대학과 중규모 대학에서, ‘우수 교직원 채용 및 충원’은 대규모 대학에서 각각 3순위로 나타남

• • •

V. 고등교육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건의

- 고등교육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건의는 6개 상위범주, 10개 세부 영역으로 분류됨

- [자율성/규제] 부문의 ‘대학 운영(학사, 입학, 정원, 교원, 회계 운영 등) 자율성 확대’가 1위(49개교), [재정 지원] ‘법에 기반한 고등교육 정부 투자 확대’가 2위(43개교), ‘대학 유형 및 특성화를 기반한 맞춤형 재정지원 요구’가 3위(32개교)로 제안됨

- 설문 주제와 관련된 ‘디지털 대전환 및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지원체계 마련’은 5위(25개교)로 제안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별도 재정 항목을 마련하여 관련 인프라, 공동 교육 플랫폼, 공동 R&D, 인재양성, 교원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다수 제안됨

상위 범주	세부 영역	빈도수
자율성/규제	대학 운영(학사, 입학, 정원, 교원, 회계 운영 등) 자율성 확대	49
	재정 관련 규제 개선(등록금, 세액공제 법 개정 등)	25
	평가 관련 규제 개선(행정 과다, 소규모 대학 등)	21
재정 지원	법에 기반한 고등교육 정부 투자 확대	43
	대학 유형 및 특성화를 기반한 맞춤형 재정지원 요구(설립, 규모, 한계대학 등)	32
지역 맞춤형	지방대학의 활성화 강화 및 지원(지역 인재 정주 등)	28
교육/연구	디지털 대전환 및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지원체계 마련	25
	R&D 지원 확대	9
정책	정책의 안정성 제고(지속성 및 부처간 협업 등)	11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확대 지원	7

〈그림 8〉 고등교육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건의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로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은 ‘법에 기반한 고등교육 정부 투자 확대’가, 사립대학은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가 각각 1위로 제안됨

- 대규모 대학은 ‘재정 관련 규제 개선’이 2위, 중규모 대학은 ‘지방대학의 활성화 강화 및 지원’이 3위, ‘대학 유형 및 특성화를 기반한 맞춤형 재정지원 요구’는 소규모 대학에서 2위로 나타남

〈표 8〉 대학의 설립 및 규모에 따른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건의(상위 3개)

상위 범주	세부 영역	전체	설립유형		규모		
			국공립	사립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자율성/규제	대학 운영(학사, 입학, 정원, 교원, 회계 운영 등) 자율성 확대	1	2	1	1	2	1
	재정 관련 규제 개선(등록금, 세액공제 법 개정 등)				2		
	평가 관련 규제 개선(행정 과다, 소규모 대학 등)						
재정 지원	법에 기반한 고등교육 정부 투자 확대	2	1	2	3	1	2
	대학 유형 및 특성화를 기반한 맞춤형 재정지원 요구	3	3	3			2
지역 맞춤형	지방대학의 활성화 강화 및 지원(지역 인재 정주 등)					3	

Remark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학 혁신을 위한 자율성 보장과 안정적 재정 확충 필요

1.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1위로 나타남.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3년 설문조사 이후 처음으로 2위로 진입,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3위로 내려옴
2. 대학 전체의 73%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중이며, 특히 대규모 및 국공립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AI 활용 측면에서는 ‘생성형 AI 수업’과 ‘챗봇’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활용 방식이 더욱 다각화되는 추세임. 이러한 AI 활용 확산 흐름은, 대학들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이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로 꼽힌 점과도 맥락을 같이함
3. 2025년도 등록금 인상한 대학은 148개 응답 대학 중 103개교(69.6%)로 나타남.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서 학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 또는 집행을 계획한 분야는 1~3순위 모두 학생의 학습·생활환경 개선(다양한 시설 및 공간 지원, 첨단 교육시설 개선, 노후시설 보수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에서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11위→6위)하였는데, 이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집행한 분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4. 고등교육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건의로는,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가 1위, ‘법에 기반한 고등교육 정부 투자 확대’가 2위로 나타남. 이를 통해 총장들이 대학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대전환 대응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두 요소가 실질적 변화와 혁신 추진의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음